

컴퓨터 기술 발전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컴퓨터는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컴퓨터가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주목할 만하다. 범용기술이란 “일반적인 경제 발전을 더욱 가속하는 기술”인데 컴퓨터 기술이 대표적인 예이다.<sup>1)</sup> 특히 정보통신기술은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가 결합한 형태의 기술로서 하이테크 분야 외에 농업, 광업 등 컴퓨터와 무관해 보이는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규모를 증가시켰지만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부작용 또한 초래했다. 우선 자본가 계급은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면서 굳이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높은 산출량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낮은 기량의 노동자, 혹은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컴퓨터 기술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고급 기량의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따라 노동 수요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sup>2)</sup> 게다가, 디지털 기술로 상품 자체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소수의 강력한 지배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의 재능, 통찰력, 결정이 한 국가 혹은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타 상품에 비해 높은 가격에도 이들의 상품을 기꺼이 소비한다. 결국 소수의 ‘슈퍼스타’와 기타 일반인이 양분된다.<sup>3)</sup> 마지막으로 노동에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자본의 장악력이 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결과, 대부분의 총생산을 자본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계와 인간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우위에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과 그 집합체인 조직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그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 번째 방식은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창조적 파괴’라는 혁신을 통해 무한하게 서로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조합을 생산해낼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인적 자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기량을 계발할 수 있다.<sup>4)</sup> 그러나 이런 방식은 기본적으로 경제 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생산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sup>5)</sup>

결과적으로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의 결합, 즉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디지털 프론티어’가 될 것이다. 지식이 디지털화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보급되면 추가 비용 없이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 프론티어는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싸게 보급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등 사람들의 삶 자체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준다.<sup>6)</sup>

우리는 분명 컴퓨터 덕분에 거대한 부를 창출하고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로 인한 일인당 총생산이나 생산성 등의 평균적인 수치의 증가를 맹신해서도 안 된다.

1) 에릭 브린올프슨, 앤드루 매카피 공저, 정지훈, 류현정 역, 『기계와의 전쟁』, 틱ום, 2013, 55p.

2) Ibid, 86-90pp.

3) Ibid, 92p.

4) Ibid, 114-128pp.

5) Ibid, 131p.

6) Ibid, 148-151pp.

평균값은 극단적인 값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단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즉, 평균값은 중산층의 몰락현상과 같은 현대사회의 실질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전체 부는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사회에서 '정보'가 부의 원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불평등이 결국 부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평등이 일어난다고 믿는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TED와 같은 강연 공유 사이트는 정보 공유의 긍정적인 사례다. 그러나 정말 부의 증대에 필요한 '질적인 정보'는 불평등하게 산재하며, 대중에게 쉽게 주어지는 정보들은 대부분 지배층을 위한 것이다.

첫째,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 사람들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또 다른 차원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층은 신체적인 능력 저하로 인해 고통 받을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 능력의 부족 때문에 사기로 인해 재산을 잃는 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다. 청년층, 중장년층 또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질적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검색 능력은 인터넷 이용 가능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에 접근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질적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도 개발하기 힘들다.

둘째, 정보의 전달 과정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주로 자본가 계층의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권력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자주 게시함으로써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검색을 해도 그 검색어에 대한 정보보다는 검색어와 관련된 이익집단의 정보를 준다. 예를 들어, '사과'를 검색하면 사과에 대한 정보보다는 사과를 파는 웹사이트가 가장 위에 뜬다. 추천검색어도 '사과직거래'가 첫 번째에 위치한다. 대중들은 보통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이 이익을 창출하는 작업에 무의식적으로 참여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은 정보의 전달 범위를 확장시켰으나 정보 생산의 독점을 야기했다. 정보의 전달 범위는 마을 이장의 방송을 통한 마을 전체, 라디오 방송을 통한 하나의 국가, 인터넷을 통한 전 세계로 점차 커졌다. 우리는 더 이상 마을 지도자인 이장이 아니라 스티븐 잡스와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의 말에 더 경청하게 된다. 과거엔 수많은 '작은 지도자'들이 좁은 범위 안에서 대중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지금은 소수 '거대한 지도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즉, 전문화된 정보의 생산이 극히 소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전문가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한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대중들은 그 전문가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기 쉽다. 전문적인 정보는 쌍방향이라기보다는 일방향이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독점 생산하는 주체들은 큰 부를 얻는다. 정보 수용자로서의 대중은 그들에게 큰 대가를 지불할 뿐이다.

결국 디지털 기술은 전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는 있지만 그 증가한 생산성을 적절하게 분배해주지는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 롤즈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쓰고 모든 사회 구성원 개인에게 최대한 평등한 정책을 수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지의 베일이란 자신이 부자일지 빈자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특정 계급이 아니라 모든 계급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개념이지만 적어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펴야 한다.

#### 참고문헌

에릭 브린올프슨, 앤드루 매카피 공저, 정지훈, 류현정 역, 『기계와의 전쟁』, 틱ום, 2013.